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구강보건 행동의 관련성

노은미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s Oral Health Behavior

Eun-Mi Noh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

요약 본 연구는 구강관리습관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부모의 양육태도가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366명으로 하였고 연구도구는 본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교 저학년 구강보건행동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양육태도가 구강보건행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p < 0.01$). 구강보건행동 영향 요인 확인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변수인 애정-적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구강건강행동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를 접목하여 향상시킬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부모, 양육태도, 구강보건행동, 초등학교, 구강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heck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oral health behavior on low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ere oral care habits are form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66 students in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the research tools used self-written questionnaires that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to suit this purpose. Parenting attitudes of parents and lower-grade oral health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owed significant amounts of correlation, especially affectionate, autonomous and reasonable parenting attitude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oral health behaviors($p < 0.01$).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oral health behavior showed that parental attitudes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ild variables($p < 0.01$). Therefore, since parenting attitudes are related to children's oral health behaviors, it is believed that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omote oral health education that can be improved by combining them.

Key words : Parents, Parenting Attitude, Oral Health Behavior, Elementary School, Oral Cavi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초등학교시기에 치아는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되며, 당분 섭취가 많아지는 연령층으로 치아우식증이 증

가하고 치은염이 진행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양대구강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구강보건 교육과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1].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이루어진 구강관리습관과 행동은 평생 동안 지속되어 성인기의 구강건강유지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2019 year)

*Corresponding Author :Eun-Mi Noh(molar@ch.ac.kr)

Received November 1,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Revised December 2, 2020

Published December 28, 2020

로 학령기의 구강보건행동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학생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므로 학교에서는 교사가 가정에서는 학부모가 구강보건교육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시기에 구강건강상태를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관심이 구강보건지식으로 이어지고 구강보건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3].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요인은 부모이다. 또한, 출생 이후 학령기 때까지 건강관리에 대한 생활습관을 일차적으로 부모로부터 습득하게 되며 건강에 대한 신념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행동 등을 배우게 되는 경향이 있다[4].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건강관리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지지나 양육태도 역시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와 연관성이 있다[5].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6],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은 건강증진행위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졌다[7].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요인임을 시사하며 구강건강은 건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건강지표로 구강건강관리와 행동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8].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하는데 있어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유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치가 맹출 되는 시기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구강관리를 통하여 효과적인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여러 가지 행동에 영향을 주고, 아동의 건강관리와 행동조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9].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서 취해야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양하며 부모의 양육태도(애정성, 자율성, 합리성, 성취성)에 따라 학생의 성격이나 인성변화와 관련한 행동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교류적 관계로서 다양한 경험과 책

임을 공감하는 친밀한 관계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역할은 자녀의 성격형성이나 행동변화는 물론이고 아동의 지적, 신체적, 정서적 및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성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성숙한 부모는 자녀에게 따뜻하면서 애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며 이러한 태도는 학생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타인에게 친절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는 인성을 형성시켜준다. 결론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애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부모에게 양육된 아이는 행동에 있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부모의 양육태도는 초등학교생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황혜자, 김향숙(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간지향적일 경우 자녀는 친사회적 행동이 증진된다고 보고하였으며, 기보경(2000)[10]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온정·수용적인 유아 중심적일 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의 양육태도를 영향변수로 한 구강보건행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정 질병이나 건강증진행위를 초점으로 본 소수의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건강과의 연관성을 본 연구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체중과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보거나[11],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연구 등[5] 이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구강보건행동 정도를 알아보고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 및 구강보건행동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구강보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U광역시 5개구(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울

주군)에 소재한 5개 초등학교 1-3학년 재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대상의 동의를 구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74부를 회수하여 전체 설문지 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8부를 제외하고 366부(회수율 97.8%)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문항은 김[12]의 연구설문지를 참고하여 20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높은 점수일수록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애정-적대 .86, 자율-통제 .82, 성취-비성취 .89, 합리-비합리 .87로 나타났다.

구강보건행동에 대한 도구는 김 등[8]의 연구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으며 구강보건행동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보건행동은 Likert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구강보건행동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18.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 검증은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고 부모의 양육태도(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구강보건행동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66명 중

남학생이 196명(53.6%), 여학생은 170명(46.4%)였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111명(30.4%), 2학년 122명(33.2%), 3학년 133명(36.3%)이었다. 지역별로는 북구가 101명(27.8%)로 가장 많았고 동구 76명(20.9%), 울주군 68명(18.4%), 중구 67명(18.2%), 남구 54명(14.7%)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66)

Variable	Categories	n(%)
Gender	Male	196(53.6)
	Female	170(46.4)
Grade	1	111(30.4)
	2	122(33.2)
	3	133(36.3)
Area	Buk-gu	101(27.8)
	Nam-gu	54(14.7)
	Dong-gu	76(20.9)
	Jung-gu	67(18.2)
	Ulju-gun	68(18.4)

3.2 대상자의 구강보건행동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년별 구강보건행동은 1학년이 3.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5$), 지역별로는 북구가 3.4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울주군이 3.1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Table 2. Oral Health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66)

Variable	Oral Health Behavior	
	Mean±SD	p-value
Gender		
Male	3.28±0.48	0.010*
Female	3.41±0.39	
Grade		
1	3.44±0.45 ^a	0.015*
2	3.28±0.49 ^a	
3	3.30±0.40 ^b	
Area		
Buk-gu	3.49±0.36 ^b	0.005**
Nam-gu	3.30±0.51 ^{a,b}	
Dong-gu	3.37±0.46 ^{b,c}	
Jung-gu	3.38±0.33 ^{b,c}	
Ulju-gun	3.19±0.48 ^a	

** : $p<0.01$, *** : $p<0.001$ ^{a,b,c} : Duncan

3.3 대상자의 부모양육태도

연구대상자의 부모의 양육태도(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라 애정-적대적인 경우는 남학생이 4.19점, 여학생이 3.95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학년별로는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적 양육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05$), 부모의 양육태도를 학년이 낮을수록 성취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합리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부모의 양육태도는 북구학생들이 애정적이고 성취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Table 3. Parental Attitud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66)

Variable	Affection-hostility	Autonomy-control	Achievement-non-achievement	Rational-irrational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3.95±0.71	3.55±0.75	3.43±0.87	3.65±0.86
Female	4.19±0.63	3.71±0.67	3.42±0.79	3.88±0.82
p-value	0.020*	0.109	0.272	0.423
Grade				
1	4.01±0.60	3.58±0.72	3.61±0.82 ^b	3.59±0.57 ^a
2	4.03±0.66	3.59±0.71	3.34±0.62 ^a	3.81±0.59 ^b
3	4.11±0.68	3.66±0.72	3.34±0.60 ^a	3.83±0.58 ^b
p-value	0.478	0.626	0.018*	0.048*
Area				
Buk-gu	4.19±0.59 ^b	3.68±0.68	3.70±0.78 ^b	3.77±0.78
Nam-gu	3.98±0.72 ^{a,b}	3.59±0.75	3.30±0.58 ^a	3.68±0.62
Dong-gu	3.88±0.76 ^a	3.47±0.72	3.41±0.66 ^{a,b}	3.56±0.84
Jung-gu	4.16±0.69 ^b	3.74±0.70	3.47±0.60 ^{a,b}	3.93±0.80
Uiju-gun	4.11±0.59 ^{a,b}	3.65±0.69	3.31±0.60 ^a	3.87±0.77
p-value	0.042*	0.202	0.048*	0.052

* : $p < 0.05$, ** : $p < 0.01$ ^{a,b,c} : Duncan

3.4 대상자의 부모의 양육태도, 구강보건행동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부모의 양육태도, 구강보건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강보건행동은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성취-비성취를 제외하고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애정-적대($r=0.248$), 자율-통제($r=0.174$), 합리-비합리($r=0.17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Oral Health Behavior, Parental Attitude (N=366)

Variable	Oral Health Behavior	Affection-hostility	Autonomy-control	Achievement-non-achievement	Rational-irrational
Oral Health Behavior	1	0.248**	0.174**	0.095	0.171**
Affection-hostility		1	0.423**	0.252**	0.522**
Autonomy-control			1	0.249**	0.419**
Achievement-non-achievement				1	0.062
Rational-irrational					1

** : $p < 0.01$

3.5 구강보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등학생 저학년의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Table 5와 같다.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중 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여 회귀분석이 가능하였다. 구강보건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애정-적대($\beta=0.193$), 자율-통제($\beta=0.069$), 합리-비합리($\beta=0.038$), 성취-비성취($\beta=0.027$)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애정-적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0.01$)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69.0%였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Oral Health Behavior (N=366)

Variable	B	SE	β	T	p-value
Constant	2.538	0.163		15.562	0.000
Affection-hostility	.127	.041	.193	3.090	0.002**
Autonomy-control	.044	.037	.069	1.186	0.236
Achievement-non-achievement	.015	.029	.027	0.514	0.607
Rational-irrational	.021	.033	.038	0.619	0.536
$R^2=0.69$ $F=6.824$ ($p < 0.001$)					

** : $p < 0.01$

4. 논의

본 연구는 평생구강관리의 초석이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구강보건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구강보건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의 구강보건행동 정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3.44점으로 2.3학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Park & Choi[8]와 Ahn[13]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외모와 구강관리에 관심이 많고 저학년일수록 유치원 때부터 학습한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이 행동으로 실천화된 결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위변수인 애정-적대는 남학생이 4.19점으로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남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욱 애정적인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성취적인 양육태도를 지각하고 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하명선[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애정-적대적인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아동의 학년에 따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및 합리-비합리적 등 양육태도의 4가지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Lee[15]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구강보건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구강보건행동은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성취-비성취를 제외하고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애정-적대($r=0.248$), 자율-통제($r=0.174$), 합리-비합리($r=0.171$)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건강증진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Min[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구강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Ji[16]의 연구와 일부 일치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구강보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산 설명력은 69%로 유의한 것으로 보였다($p < 0.001$). 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변수인 애정-적대가 가장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구강보건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애정-적대($\beta=0.193$), 자율-통제($\beta=0.069$), 합리-비합리($\beta=0.038$), 성취-비성취($\beta=0.0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애정-적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 이

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구강보건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형성된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변화는 평생동안 구강건강 관리와 유지의 근간이 되므로 이 시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구강보건행동 습관 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구강보건행동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양육태도가 구강보건행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강보건행동 영향 요인 확인을 위한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 애정-적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강보건행동을 6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구강보건행동 습관화를 위해서는 이들 변수들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위한 조사 대상 확대와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S. Choi. (2012). *Application of Mothers Involved in the Dental Health Program for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Eulji University, Seoul.
- [2] H. S. Park & J. S. Kim. (2007). A Survey of Parent's Oral Health Perception for the Oral Health Promotion of the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7(3), 135-139. DOI : G704-002151.2007.7.3.002
- [3] E. M. Noh. (2019). Comparison of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according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Oral Health Educ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1), 241-246. DOI : 10.22156/CS4SMB.2019.9.11.241
- [4] C. Jackson & D. M. Dickinson. (2009). Developing

- parenting programs to prevent child health risk behaviors: a practice model. *Health education research*, 24(6), 1029-1042.
- [5] H. Y. Min. (2011). A stud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lf-esteem,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Perception of Parents' nurturing attitudes.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Seoul
- [6] H. G. Shin, I. Y. Yu & U. K. Mo. (2010). Comparative Study of the Students'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between the Elementary Schools With or Without Dental Clinic.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6(3), 220-229.
DOI : 10.4094/jkachn.2010.16.3.220
- [7] M. S. Jeon & H. O. Kim. (2010). A Predictive Model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Obese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2), 264-276.
DOI : 10.4040/jkan.2010.40.2.264
- [8] I. S. Park & E. M. Choi & H. J. Kim. (2014).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Patterns of School 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2), 181-187.
DOI : 10.13065/jksdh.2014.14.02.181
- [9] H. Y. Min & S. J. Kang. (2015).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Children's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5(11), 165-176.
DOI : 10.5392/JKCA.2015.15.11.165
- [10] B. K. Ki. (2000). *A Study on the Breeding Attitude of Mother and the Pro-social Behavior of Infant*. Master's thesis. Kyunggi University, Suwon.
- [11] Y. J. Choe & H. S. Min. (2009). Comparison of Children's Body Weights and Eating Habits by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Children.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trition*, 14(1), 77-86.
DOI : 10.5720/kjcn.2019.24.6.453
- [12] N. K. Kim. (2019).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 Values, Social Support, Parental Attitude, and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13] K. S. Ahn. (2016). Factors associated with Oral health knowledg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5), 359-368.
DOI : 10.22156/CS4SMB.2017.7.6.069
- [14] M. S. Ha & S. B. Lee (2009). The Influence of the Children-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Self Elasticity to adjust to school Lif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8(3), 247-258.
DOI : 10.17643/KJCE.2009.28.2.07
- [15] E. O. Lee. (2016).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Attitude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cheon.
- [16] M. K. Ji. (2017).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and Self-Resilience, Oral Health Promotion Lifestyle in Som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6), 69-78.
DOI: 10.22156/CS4SMB.2017.7.6.069

노 은 미(Eun-Mi Noh)

[정회원]



- 2007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 의학과(보건학 석사)
- 2010년 2월 : 대구한의대학교 노인의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예방치과학, 치주학, 노인의료복지학
- E-Mail : molar@ch.ac.kr